

-----  
**전체 주제: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의 하나님**

메시지 15

**야곱의 하나님**

(5)

**엘 벤엘—하나님의 집의 하나님, 교회의 하나님**

성경: 창35:1, 6-15, 27

**I. 야곱의 생애에 있었던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예표였다—롬9:11, 고후3:18, 엡2:21-22.**

**II.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—출25:8.**

A.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의 일부가 되기 위해 구원되었다—행4:10-12, 벰전2:4-5.

B. 하나님의 건축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해 들어오시어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—엡3:17상, 19하, 21.

C. 하나님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심이다.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건축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는 것이다—요14:20, 15:4상, 엡3:17상.

**III.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단체적인 체험—하나님을 벤엘의 하나님으로 체험함—으로의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—요14:2-3, 20, 엡3:17-21, 4:4-6.**

A. 창세기 35장 7절에는 새로운 신성한 칭호—‘엘 벤엘’,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—가 있다.

1. 이 장 전에는 하나님이 개인들의 하나님이셨다—28:13상.

2.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엘 벤엘, 즉 단체적인 몸의 하나님,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다—시84:1-4, 10.

3. 야곱은 벤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그분의 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.

4. 우리의 하나님은 벤엘의 하나님, 교회의 하나님이시다—딤펵3:15.

B. 벤엘은 단체적인 생활, 즉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벤엘의 하나님으로 부름으로 야곱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으로 전진했다—고전12:12.

1. 야곱이 세겔에 쌓은 제단은 ‘엘 엘로헤 이스라엘’ 이라 불리었는데, 그 이름은 개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—창33:17-20.

2. 야곱이 벤엘에 쌓은 제단은 ‘엘 벤엘’ 이라 불리었는데, 그 이름은 한 단체적인 몸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—35:6-7.

3. 세겔에 있는 제단은 개인적인 제단이었지만 벤엘에 있는 제단은 한 단체적인 제단, 하나님의 집을 위한 제단이었다.

- C.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베엘의 건축을 위해 계시된다. 우리는 오직 베엘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—11상.
1.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.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분이시다.
  2. 우리는 개인적인 방식으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.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베엘, 즉 교회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.
  3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심은 몸을 요구한다.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방면을 체험하려면 집, 곧 건축이 필요하다—빌1:19.
- D. 아버지, 아들, 그 영, 교회는 하나 안의 넷이다—엡4:4-6.
1. 궁극적으로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 있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 한 무리의 백성이다—3:16-21.
    - a.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,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고, 그분들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.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었다—요14:9-11, 16-20.
    - b. 아버지, 아들, 그 영은 하나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.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의 조성인 하나 안에 넷이다—요14:2-3, 20.
  2. 아버지, 아들, 그 영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므로,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이제 ‘하나 안에 넷이신 하나님’ 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이 넷은 아버지, 아들, 그 영, 몸이다—엡4:4-6.

#### IV. 하나님의 집인 베엘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—엡1:22-23.

- A.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며, 그리스도의 표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단체적인 것이다—요17:22, 롬9:23, 엡3:21.
- B.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, 우리의 천연적인 갈망,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잃게 할 것이다—창35:16-20.

#### V. 더 깊고 직접적인 다루심을 체험한 후 야곱은 헤브론에서 주님과 완전한 교통 안으로 들어갔다. 헤브론에서의 교통은 친밀함, 평강, 기쁨, 만족을 의미한다—27절.

- A.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, 우리가 헤브론에 와서 주님과 완전한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더 깊고 직접적인 다루심을 통과하는 여정이 아직도 필요하다—요일1:3, 6, 고전1:9.
  1. 헤브론에서의 교통에서 우리는 주님과 놀라운 친밀함을 누리고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갖는다.
  2. 헤브론은 또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곳이다—요14:20, 엡4:13, 빌3:15, 골1:28, 히6:1.
- B. 헤브론에서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의 교통이기도 하다—빌2:1, 고전1:9, 요일1:3, 7.
  1. 헤브론에서 야곱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. 그는 모든 것을 교통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교통 밖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—요15:1, 5, 16.
  2. 우리의 육체가 다루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알 것이고, 교통의 중요성을 알 것이며, 몸의 교통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—고전12:14-27.